

< 제10회 졸업식 원장 격려사 >

사랑하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회 졸업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예로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로스쿨 학업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에 그 힘든 과정을 당당히 헤쳐나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여 받는 ‘법학 전문 석사’ 학위는 여러분이 용기 있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노력하여 성취한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참 잘했다! 대견하다!” 스스로 칭찬의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러한 칭찬을 받을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겹게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준 부모, 가족, 친지 등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해준 사람들 한분 한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여러분을 사랑해준 귀한 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분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축하받기에 앞서 먼저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졸업생들이 있기까지 그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참아주셨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앞으로 더욱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그 은혜를 갚아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제10회 졸업식입니다. 2012년 제1회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기 졸업생들에게 저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레전드(전설)가 될 것이다!” 란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꿈만 같았던 그 이야기가 정말 10년이 지나자 어느덧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힘이 미약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변화의 모습이 미미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나라 법조계는 큰 변혁의 바람을 타고 크게 변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회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10년이 더 흐르면 우리나라 법조계는 과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법조 문화가 자리 잡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법조계를 이끌어나가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도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법률가로 그 어디를 가나 인정과 칭찬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좋은 평판은 어느덧 우리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가꾸어 놓은 이런 좋은 전통을 이제 제10회 졸업생 여러분들도 그 바탕을 잘 이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함께 수학했던 여러분의 동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침표가 시작점의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이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몸을 낮춰 더 많은 것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앞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올해 졸업한 여러분 모두가 단번에 이 산을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혹, 만에 하나, 이번에 산을 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여 계곡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스키를 40살에 배웠는데요, 처음 스키를 배울 때는 균형 잡는 법 등 기본기를 배우다가 나중에 초급을 벗어나 중급 코스를 타기 시작하면 “up & down” 을 잘 해야 하더군요. 스키를 탄 몸을 낮추기도 하도 높이기도 해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속도감을 느끼며 스키를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을 낮추어야 할 때도 있고 높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좋은 것도 같지만 속도감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지요. 합격의 기쁨도 불합격의 쓰라림도 나중에 한 참 뒤에 뒤돌아서 보면 우리 인생의 재미난 스키 코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학한 학생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자세로 아주대 로스쿨은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여러분의 모교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좋은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모든 교수는 제자들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재학 중일 때는 물론 졸업하고도 여러분의 좋은 스승으로 남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10회 졸업생들을 그동안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동안 배우고 익혔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응전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법조 윤리를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법률가, 탁월한 법률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2.18.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영수